

인사말:

이제 방방곡곡의 숲의 터전에서, 시민단체에서, 연구소에서, 길거리에서
각각 조직적 활동하고 있는 동맹이 여성환경연대가 바람의 주체라고 하는
사회적 생태계를 살려내는 생명의 곁을 지키기 위해 1999년 6월 23일
개최한 <모든 것이 모두로임>에서 태어난 여성환경연대가 이제 다섯번째로
생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여성환경연대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연대들이 새로운 길로 가고 있다
현실을 깨닫고자 하는 한해였지만. 참여정부의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준비
전략"과 '국민의 환경백서'를 추진하면서 개발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
하면 서민층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과들의 생명을 내면 사보살배의
평화의 행진을 끝까지 왜연한 정부를 보면서 참여정부의 반환경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002년 여성환경연대의 2분기보고서 발표에서 바람의 연대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고 있습니다. 연대활동을 통해오는 활동가들의 지로강화, 지역
여성환경연대의 거점 확보, 국제기구에서의 지로강화 등의 국제연대강화
를 도모하는 한편 제2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세에 부응하여 생명의
평등의 문화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여성환경연대의 기능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4.15 총선리정에서 여성들이 과반을 차지한 정치참여의 위기관리능력으로 여성의
정치적 이입증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이 사회를 보는 세상에 여성
환경연대가 주체 없이 더욱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환경분야의 중요한
현안들은 모두 이젠 후에야 되고 우리 마음 한바탕에 있습니다.
<한국의 봄> <우리의 공동 미래> 등을 통해 인간친화적 양극 경제성장의
개발노선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물고 온 계기를 마련한 사업들은 모두
여성에게서 시작되고 한 발입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창립 5주년을 맞아 2002년의 반생태적인 죽음의
사회를 생명력이 넘치는 세상으로 바꾸는데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의 계기를 만드는 주역이 될것을 다짐합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역량이 있기까지 지켜보아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후원이 있은채 2003년 가능합니다.

올해로 50살이 되고 20년 소망한 우주가 이루어지는 초여름밤의
잔치를 우리같이 천하대기 넘쳐서 이곳 고요한 천하대기에서
가득히 웃고 있는 기쁘게 생애를 마무리하며 풍요로이 지내기를
바랍니다.